“전남 국립의대, 지사가 결정해 오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

한덕수 총리, 화순전남대병원서 지역 비상진료 현장 점검 간담회
김영록 지사, 취약지 의료인력 확충·쌀값 대책·특별자치도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맨 왼쪽에서 세 번째)가 지난 13일 오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열린 ‘지역 비상진료 현장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 구복규 화순군수,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전대병원장 등 20여명과 지역 비상진료 대응상황 점검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정부가 국립 의대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가운데 전남도가 당초 추진했던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추진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대학 2병원’ 방안과 함께 목포대·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설립 방안도 정부 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순천대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정부가 국립대학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데다 의대 설립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공모 참여를 완강하게 거부했던 순천대가 최근 용역기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가 50여일 남은 시점에 전남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시 한 번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 속에 30년 숙원인 국립의대 설립을 도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불편·치료비 부담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풀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암 특화 지역 거점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 ‘지역 비상진료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어 국립의대 설립과 취약지역 의료인력 확충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구복규 화순군수, 정신 전남대병원장, 민정준 화순전대병원장 등 20여 명이 함께해 지역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살피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현안 과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한덕수 총리에게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길을 열어준 국무총리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남은 비상진료 상황에 대응하고자 전 시·군 상황실 운영, 24시간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 재난관리기금 특별지원, 지방의료원 진료연장 등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해 화순전남대병원, 목포·순천권의 의료 삼대축을 중심으로 도민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만 의료현장 개선을 지원했었지만, 의료개혁을 통해 국방·치안 정도의 수준까지 2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을 대폭 지원하겠다”며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사께서 결정해 가져오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기금 국비 3억원 별도 지원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간호사까지 확대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행 등을 건의했다.

또 섬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병원선 유류비가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다.

의료 현안 외에도 ▲2023년산 쌀 재고물량 선제적 매입 등을 포함한 산지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실질적 자치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추가 건의했다.

간담회를 마친 후 김영록 지사와 한덕수 총리는 추석 연휴에도 비상진료 유지에 힘쓰는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을 격려하고, 입원 환자를 위로하며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방식을 ‘1대학 2병원 신설’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을 확약한다면 공동의대 추진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양 대학이 공동의대 확약서를 제출하면 용역기관 추천안은 폐기하고 공동의대 설립안을 정부에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추수 앞두고 벼멸구 비상…전남도 긴급방제

22일까지 32억 투입…전담지도사 투입 현장 점검도

본격적인 추수를 앞두고 고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전남도내에 벼멸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농업기술원, 농협전남본부와 공동으로 농약 안정적 공급, 방제 지도, 약제 구입비 지원 등에 나서는 등 공동 대응하고 있다. 우선 오는 22일까지 5일간을 긴급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벼멸구 방제비 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온건조한 기상 조건이 지속되면서 벼멸구 발생 면적이 평년(3876ha)보다 1.7배 많은 6696ha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벼멸구는 6~7월 중국에서 유입돼 벼 포기 아래에 서식, 벼 출수 이후(8~9월) 볏대의 중간 부분에서 즙액을 먹어 고사시키는 피해를 준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부터는 보성, 해남 등 일부 시·군에 대해 도와 농업기술원이 합동으로 전담지도사 70여 명을 긴급 투입, 신속한 방제와 현장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멸구는 주로 볏대 밑부분에 서식하므로 발생 농가에서는 농약이 볏대 아래까지 묻도록 충분히 살포하는 등 적기 방제에 힘써달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농가는 지역농협으로 보험금 지급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내일부터 독감 무료접종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어린이·임신부·노인 순차적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한 무료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31일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광주 40만여명, 전남 53만여명 등이 대상이다. 전남도는 올해 국가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2만2000명에게도 독감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무료 접종은 가장 먼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한다. 20일에는 접종 이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을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무료 접종 대상이다.

10월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어린이)와 임신부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시작하며, 2025년 4월 30일까지 지속한다. 특히 10월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되는데, 방역 당국은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포함된 4가백신이 사용된다. 질병청은 1170만 도즈(1회 접종분)에 대한 조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접종은 무료백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유료로 할 수 있다.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정보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의 ‘예방접종 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가 사전에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가 도입된다. 전자예진표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작성할 수 있다.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접종할 경우에는 각각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2주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접종으로 인해 70~9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감은 평균적으로 10월말부터 2월까지 유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늘고 있어 고위험군은 접종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예방접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어린이는 반드시 독감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줄어드는 종이우편…내년 2100억 적자 예상

우정사업본부, 요금 인상 추진

우편 이용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인건비 등 비용은 계속 늘면서 정부 우편 사업 적자가 올해 1900억에 이른 뒤 내년에는 처음으로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우정 당국은 4년간 동결된 우편요금의 내년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우편 적자를 예금·보험 등 사업 수익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8일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흑자를 냈던 우편 수지는 지난해 1572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1900억원으로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당국은 내년 적자액이 2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편 적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 이른바 ‘페이퍼리스’가 보편화하면서 통상 우편물이 줄어든 데 기인한다.

2022년 25억6000만 통이었던 통상 우편 물량은 지난해 23억4000만 통, 올해 21억7000만 통으로 줄어 내년에는 20억2000만 통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유가 등 우편배달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점도 우편 적자의 큰 요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우편 요금 인상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예금·보험 사업의 수익금을 결손 보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우편·예금 특별회계 간 상호 결손 보전을 통해 우체국 예금 사업의 이익금을 우편 경영 수지 적자를 메우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를 보험 사업의 이익금까지로 넓히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중앙신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용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뚜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 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정유경(680904-1XXXXXX)
- 최후주소 : 목포시 관해로5번길 29, 303동 603호(용해동, 포미타운주공3단지)

피상속인 망 정유경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4느단205호로 신청하여 2024년 9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19일

- 상속인 : 정태양(940307-1XXXXXX) 목포시 석현로45번길 19, 102동 302호 (석현동, 수창해뜨레)
- 신고기간 : 2024. 9. 19. ~ 2024. 11. 2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정태양의 주소

72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3-6836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73-6836	백 운 651-1833
	봉 선 673-6836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